

대학생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 실태
- 대전시 소재 D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onsciousness of the
College Students

차 성 란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전공

Cha, Sung Lan
Major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trepreneurship consciousness of the college students in Daejeon City.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level of the entrepreneurship consciousness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very high. Second, the younger group tended to be more active in venturing during the college time. Third, the group over 23 years old tended to have higher level of the abilities as a man of enterprise. Fourth, students with the self-employed parents tended to be high level of entrepreneurship consciousness and their personal traits for the enterprise compared with other group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self-employed, college students

I. 문제의 제기

최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는 기업 창업에 대한 의욕을 꺾어놓고 있다. 2001년 4월 8대 도시를 대상으로 창업 동향을 조사한 중소기업청의 결과에 의하면 신설법인수는 3,170개로서 전년동월대비 17.4%, 전월대비 13.1%가 감소하였다(<http://www.smba.go.kr>).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 창업의 경우 정보기술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대학생들의 벤처창업이 끊이지 않는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대학생 창업이 98년 70건, 99년 97건, 2000년에 100여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공분야도 공대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계열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www.chosun.co.kr>). 그러나 곧이어 대학동아리의 벤처창업이 99년도에 90여개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 30여개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벤처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 자금원이었던 엔젤자금이 거의 끊어진 데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환경은 일반 벤처창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벤처창업에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단지 열정

Corresponding author : Cha, Sung Lan
Tel : 042) 280-2474, Fax : 042) 283-7172
E-mail : slcha@dju.ac.kr

만으로 창업하는 무모함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지나친 창업 열기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던 군소기업들이 정리되고, 전실한 기업 경영구조를 지닌 기업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구조의 전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보기술업계는 보고 있다.

한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대학생 창업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예전에 비해 내실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서울경제, 2001년 10월 26일).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활동의 부침은 어느 시기에서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열풍이 일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나 직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은 그러한 시각변화에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정보산업에서의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시장구조의 변화, 그 파급적 효과로서 노동시장이 유동성을 띠는 데 따른 직업적인 불안정성,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화교류 및 가치관의 교환이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직업의식을 서서히 바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기업경영에는 부와 명예가 뒤따르지만 기업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려면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경영능력을 필요로 한다. 젊은 대학생들이 벤처기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바로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패기와 도전정신 때문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학내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벤처창업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유지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경영활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덕벨리를 향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학인 D대학교의 경우 대

학생들의 기업경영을 배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내 벤처동아리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학생 창업으로 이루어진 기업 역시 아직은 없다.

기업경영은 특히 소규모의 가족기업 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경제규모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며, 노동력의 60%를 흡수하는 우수한 고용기회 제공원이기도 하다. 기업 창업은 정보화가 가져온 일시적 유행이 아니며, 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새로운 경제 구조를 속에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이자 기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대학의 경우, 대학생 창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기업경영의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대학 재학중인 학생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는 학업이지만 대학생 창업 내지는 기업경영활동은 정보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이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경영의식의 변화된 모습과 대학생의 창업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업경영에 대한 낮은 관심이 학생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낮은 의식 때문인지 알아보고자 D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D대학의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방대학의 재학생들에게 기업경영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경영

1) 가정관리학과 기업경영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가정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왔다. 여전히 생산의 기

능이 중요하던 현대사회의 가정은 점점 더 시장상품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에 소비적 기능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가져온 풍요의 경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적 위기 및 정보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는 가정내 시장경제적 분야의 자원획득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로 실직을 해야 했으며, 이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자영업 창업이 크게 늘었다. 또는 실직을 대비한 직장인들이 안정적인 가계소득 획득을 위해 이중소득원으로서의 자영업 창업도 있다. 예전과는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직업관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에 따라 경력상승이나 직장이동을 서슴치 않는 유동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보사회가 갖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므로써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가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면서 고정적인 파트타임직,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의 분장화, 외부화는 이전의 고용인력이 사업체로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또한 자영업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큰 자본없이 사업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경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와 같은 사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 창업이나 크고 작은 규모의 기업경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경영학적 관점이 아니라 가계경제 유지를 위한 직업영역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해졌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계로 하여금, 구직, 직업훈련, 창업 등 직업 영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가정의 시장경제적 분야에서 획득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한다. 가정관리학은 가계의 획득자 역할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방법이나 정책적인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 경영과 자영업 경영

우선 기업경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업가라는 용어는 'entrepreneur'라는 프랑스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8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캉띠용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캉띠용은 이 용어를 상인이나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기업가란 존재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들이 위험부담을 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공병호, 1998) 이에 준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경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 경영자 중에서도 위험감수의 정도가 낮은 제조업자는 기업가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한 현대사회에서 기업가와 자영업자의 개념 구분은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류재우 외(1999)는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합하여 자영업주로 개념화하였으며, 두 유형을 전자는 기업가형, 후자는 생계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기업가와 자영업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경영범위나 필요한 능력 면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암시한다.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2001)에 의하면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자'이며, 자영업자는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는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자'라 정의된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자영업자 역시 '기업을 경영하는자'로 표현된다.

가계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기업가와 자영업자 모두 기업을 경영하는 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며, 직업적 특성면에서 봉급생활자와 대조되는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봉급생활자가 갖는 직업적 안정성, 경제적 보장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업가와 기업경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을 살펴봄에 있어, 부모의 직업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자영업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경영 및 기업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할 것이며, 용어를 혼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기업경영에 대한 인식

1) 기업경영의식의 변화

자영업자들은 “계층이 없는(classless)” 집단이라 하여, 노동자층에서 제외되거나, 연구에서 배제(Robinson & Kelly, 1979)되어 왔었다. 자영업에 대한 이미지 역시 그리 좋은 것이 못되어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상대적 기회를 제한받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자녀에게 가족기업에 합류하기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왔다(차성란, 2001).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와 평가는 급속히 변화했다.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의 경영학 전공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으며, 가족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학생들은 동료학생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Parasuraman 외, 1996).

이처럼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은 최근 몇십년 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오고 있다. 변화의 원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가장 최근의 상황으로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기업창업을 위한 요소가 산업사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에서의 경영 활동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과 인력이 필수적이었던데 비해 정보사회에서의 기업창업에는 최소한의 자본금만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사회로 본격적인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의 생산의 원동력이었던 육체적 노동력이나 자본력은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보가 중요한 경제활동 요소가 되었다. 이에 자본금이 적은 개인들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규모의 기업경영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차성란, 2001).

큰 자본금 없이 정보기술만으로도 다양한 인터넷 창업이 가능해진 것은 그러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소호형태의 인터넷 창업이 발전되어 인터넷 기업으로 성공한 예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 통신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던 콘텐츠 제공은 이제 포털업체와의 계약이나 주체적인 정보제공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기업의 잠재적 기업가치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업역사나 자본금과 비교할 때 엄청난 부를 체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을 창업하는데 많은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소규모의 기업을 창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둘째, 정보사회 진입과 기업의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다. 아웃소싱,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 인한 인력감축 등은 많은 실업자를 배출하였다. 고용구조가 경직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직자들이 가능한 생계수단은 재취업이 아니라 소규모의 자영업 창업이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소규모 가족기업형태로서의 자영업 창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차성란, 2001). 당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수의 실업자들은 다른 직장으로서의 재취업보다 소규모의 자영업 창업을 직업적 대안으로 선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다.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광범위한 재구조화와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기업부문에서의 경력승진 기회가 감소되면서 기업경영은 점점 더 매력적인 직업적 대안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벤처기업 설립비용이 지난 수십년간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도 반영되고 있다(Goffee & Scase, 1985).

직업적 불안정은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하는 문라이팅(moonlighting)족을 증가시키면서 제 2의 직업으로서 자영업을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이 더 이상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정년 이전에 개인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집약적 노동시장과 비집약적 노동시장 사이의 임금격차는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정보인력의 직장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한 직장

에서의 평균 근속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99년 기준 5.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2년 1월 1일). 이미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농공상의 직업적 선호위계가 점차 서구적인 청교도적 직업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일에 종사하던 노력의 대가로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보편적 개인의 가치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본다.

2) 기업경영의식 관련 실태

어떤 사람이 기업가(자영업주)가 되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Lucas(1978)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임금의 상승함에 따라 한계적인 기업가들이 임금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 나라에 불어왔던 창업의 열기가 IMF와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의 점진적 변화는 가족기업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오랜 직장경험을 쌓은 후 나이가 들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차성란, 2001). 실제 Bregger(1996)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용인구의 약 1/4이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직업경험상 중반기(35-44세)였으며, 매우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진다(Bregger, 1996).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기술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기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기업환경,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직업적 대안의 필요성 등으로 창업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교육수준은 향상되며, 종사하는 산업분야도 서비스 산업 외에 새롭게 창출되는 다양한 정보산업 관련 직종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http://www.sohoworld.co.kr>; <http://venturepr.co.kr>; <http://my.netian.com>; <http://www.pdi.co.kr>).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의식 관련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전국 대학

생 1,317명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 27일 실시된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http://www.njob.biz>)에 의하면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33%), 국가경제발전에 기여(28%), 대외경쟁력 강화(27%) 등을 경영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대기업 경영자가 한 국가의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기업 경영자가 부의 집중 및 세습(43%)(<http://www.njob.biz>)을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경영자의 국가경제부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12월 인제대학교 3,4학년 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technocenter.webbew.com)에 의하면 대기업57.1%, 벤처기업 42.3%로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대기업을 벤처기업보다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30.8%가 안정성을 지적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선택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17.6%,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라고 대답한 학생이 14.3%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벤처기업 선택시 조직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진로로는 취업이 67.5%로 가장 높았고 진학 14.6%, 창업이 3.6%로 나타나 창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89.1%로 가장 많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8.7%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생각 역시 매우 긍정적이어서 창업은 개인의 창의력 등 능력 발휘면에서 바람직하며 적극 장려해야한다는 의견이 79.3%로 압도적이었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조사에서 창업희망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경기변동에 따른 표면적 현상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전문기업에서 대학생 2,449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하반기 대학생 취업선호도'를 설문 조

사한 결과(<http://www.fnnews.com>), 취업희망비율이 벤처기업은 14.2%였으며, 대기업은 25.8%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청의 취업선호도 조사에서 벤처기업이 30%를 기록했던 것보다 낮게 나타나 선호도가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 전국의 대학생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선호도 연구결과(<http://www.njob.biz>)에 의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으로 공무원(8.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연구원(6.9%), 프로그래머(6.0)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최고경영자는 1.9%로 나타나 순위별로 19위라는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직업을 갖고 싶은 기업의 형태를 묻는 문항에 전문프리랜서(31.9%)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벤처기업(8.2%)과 중소기업(7.5%)은 가장 하위를 기록했다.

창업환경의 변화는 여성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의 12월 7일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성벤처 창업은 꾸준히 증가, 올해 여성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는 수만해도 100여개 이상 달할 전망이다 한다. 2000년 기준으로 대학생 창업은 15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이며, 이중 30~40%선인 50여업체 정도가 여성벤처기업으로 그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http://www.dt.co.kr>).

3. 대학생 창업 환경

1) 대학생 창업동아리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0년 말 기준으로 전국 215개 대학의 벤처창업동아리는 419개이며 회원수는 1만 1,90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ttp://www.smba.go.kr>). 2000년 2월에는 전국의

〈표 1〉 대학생 창업동아리 실태

지 역	학교수	동아리수	회원수	지역연합회장 소속대학
서울	34	45	1,500	광운대
부산, 울산	9	12	450	한국해양대
경기	43	108	2,374	한경대
인천	7	10	426	인하대
강원	15	32	781	한라대
충북	15	30	1,100	충북대
대전, 충남	22	23	1,302	공주대
전북	10	22	603	전북대
광주, 전남	20	32	762	조선대
대구, 경북	18	24	980	경일대
경남	15	67	1,400	인제대
제주	6	9	180	제주대
계	199	347	10,458	

출처 : ns.kosen.or.kr

〈표 2〉 대전, 충남지역 대학 창업동아리

대학 동아리명		대학 동아리명	
건양대	F.O.V. Lab	우송공대	장맥
공주대	NULL	충남대	기업연구회
	문화대연합회	한남대	H.N.V.C.
대덕대	LEGEND	한밭대	VISION21
배재대	벤처매신저	호서대	하이텍

출처 : <http://www.tcvc.or.kr>을 참고로 작성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합하는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 연합회(KOSEN)가 창립되어 대학생들의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사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 연합회에서 조사한 전국의 창업동아리 현황이다.

대전, 충남지역의 경우 건양대의 F.O.V. Lab을 비롯하여 총 22개의 창업동아리에 회원수 1,3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tcvc.or.kr>). 그러나 조사대상인 D대학의 경우는 창업동아리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밖에 정보통신부의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벤처동아리연합회(KVC), 대학생 벤처 CEO중심의 벤처네트워크(VFN)도 정보교류와 사교의 장으로 활용된다(조선일보, 2001년 3월 22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내 창업동아리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재학 중 창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조직적인 창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연간 12억원의 자금으로 100개 동아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http://www.bizonk.or.kr>).

2) 대학의 창업지원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특성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의 경

우 공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술력을 중시한 결과로서 성공한 벤처기업 경영자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대학생 벤처 1호인 비트 컴퓨터 외에 한글과 컴퓨터, 네띠앙, 하늘사랑 등을 창업한 기업가들이 이 대학 출신자들이다.

충남에 위치한 호서대학의 경우 95년도에 창업보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96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창업스쿨 교육기관 지정을 비롯 매년 벤처창업관련 교육기관지정 및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지정 등 벤처지향적인 교육혁신을 주도해오고 있다. 그 결과 벤처전문대학원 운영 대학으로서 2000년도에 14개 기업을 창업 총 37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 충남지역의 대학내 창업보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목원대학교는 인터넷 창업보육센터에서 1개 업체를, 배재대학교는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에서 10개 업체를 입주시켜, 지원 운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와 한남대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각각 17개업체, 13개업체를 입주시켜 기술 및 시설지원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D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연구원(IACRI) 산하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2000년도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태이다. 2001년도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업체는 10개 업체이다. 그러나 입주한 기업 모두가 일반인 창업의 경우이고 대학생 창업 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업창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교과과정에 관련과목들을 개설해 놓고 있다. 대전, 충남지역 내 대학들의 창업관련

<표 3> 대학의 창업관련 개설 교과목

대 학	교 과 목
D대	교양 : 벤처기업창업, 전자상거래, 특허 전공 : 벤처창업아이템개발
목원대	소호창업 전자상거래
배재대	벤처와 창업
순천향대	기업가정신
한남대	창업경영론
호서대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 벤처기업과 자본론 벤처기업과 21세기 미래학 대중문화와 벤처사업 벤처기업

출처 : <http://www.smba.go.kr>

교과목 개설현황을 살펴보면(<표 3>) 목원대를 비롯한 3-4개 대학들이 한두개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호서대의 경우 개설 과목수가 가장 많았으며, 공학 전공 3개 학부에 벤처산업공학전공 과정을 신설, 이를 학부 소속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토록 한 바 있다. 조사대상인 D대학의 경우 교양과정은 물론 전공과정에서도 창업관련과목을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3) 정부의 대학생 창업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이 건실한 중소기업 기반 형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

창업지원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는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예비, 신규창업자가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해주므로써 구체적인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를 뒷받침해 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므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대학 및 국공립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창업보육 사업 신청을 받아 보육센터의 건물신축, 개보수 비용, 공용장비 구입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창업보육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인큐베이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입주방식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된 것은 93년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최초의 민간창업보육센터로서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93년 12월에 이르러 중소기업청 지정 안산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면서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http://www.smba.go.kr>).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97년 IMF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통산업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당시 심각한 실업상태로 고용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가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이 신기술기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지식 기반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는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230여 개에 이르고 있다(<http://www.bizonk.or.kr>).

② 전국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는 젊은 세대들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의 창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나 우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관 응모자격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팀구성시 여러 대학 공동참여 또는 지도교수 참여가능, 대상분야는 제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유통업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업종(음식, 숙박, 병원, 약국 등 제외) 등이다.

5회 대학생 창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폴로'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 창업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경기도 대학생 창업경연대회에 이어 전국 규모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③ 창업강좌 경비지원

중소기업청은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와 함께 대학생창업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창업관련 전문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창업강좌 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http://www.changupnet.go.kr>). 일명 벤처창업스쿨로 명명되는 대학생창업스쿨은 대학생들이 창업가로서의 자질과 건전한 경영자의식을 함양토록 창업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직접 주관하는 창업강좌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수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년 3회 대학생전문창업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④ 창업아이템 개발 지원

중소기업청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돕기 위해 99개 대학, 118개 창업동아리의 150개 창업아이템

〈표 4〉 제 5회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 수상팀

수상구분	팀명	소속	창업사업명
최우수상	아폴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태양전지 액세스리
우수상	DIR system	금오공대 생산기계전공	savy
	M. Pet team	한양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M.Pet
	Creative Multimedia Techonology	밀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온라인실시간 보안컨설팅 및 하드웨어 보안솔 루션
	AMR Team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Arc Sensor를 이용한 격자형 로봇
	팝콘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부	PC주변기 사업
장려상	비단소리	송의여자대학 의상디자인과	전통조각디자인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의 구성 및 운영방법
	(주)Windy Bright	성균관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인테리어사업
	하늘 커뮤니케이션	대학연합팀	인바운드 여행업무
	컴프로자드 엔터테인먼트	인제대학교 정보컴퓨터학부	PC용 Online Game

을 선정,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개발비 지원을 받는 눈에 띄는 창업아이템으로는 베이비시터인형(성신여대), 먹고 바르는 모발개선제(경남정보대), 방향감지전조등(영남대), 음성인식 비밀일기장(호남대) 등이 있다. 400만원 한도내에서 부품, 기자재구입비, 개발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조선일보, 2001년 04월 05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부모가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기업경영의식 변인 및 자영업의 직업적 환경 변인, 부모의 자영업 승계 의사 등의 변인들 사이에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학생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2 : 학생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기업경영의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학생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기업가 자질 수준에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D대학교 재학생들의 창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은 D 대학교 재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계열과 문과계열로 나누었다. 문과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의 분포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 각 전공계열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답변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과정에서 진행상의 문제로 문과계열에 비해 이과계열의 표본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결과 해석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5)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대학	법경	71	36.4
	이과	118	60.5
	공과	6	3.1
학년	1학년	51	26.2
	2학년	35	17.9
	3학년	98	50.3
	4학년	11	5.6
성별	남자	53	27.2
	여자	142	72.8
장자여부	차남·녀이하	79	40.5
	장남·녀	115	59.0
	무응답	1	0.5
아버지직업	무직	9	4.6
	단순노무	9	4.6
	피고용기능공	3	1.5
	자영업	75	38.5
	사무, 기술직	52	26.7
	전문, 관리직	41	21.0
	중소기업주	6	3.1
어머니직업	주부	126	64.6
	단순노무	2	1.0
	피고용기능	10	5.1
	자영업	43	22.1
	사무, 기술	11	5.6
아버지 교육수준	무응답	3	1.5
	중학교 이하	26	13.3
	고등학교	89	45.6
어머니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70	35.9
	중학교 이하	75	38.5
	고등학교	103	52.8
연속형 변수	대학교 이상	17	8.7
	평균(단위)		표준편차
	연령	21.9 세	1.97
형제수	2.66 명	1.14	
아버지연령	52.16 세	4.50	
어머니연령	48.69 세	4.54	
가계소득	288.38 만원	123.94	

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256부이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사용된 것은 195부였다.

2) 측정도구

조사내용은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가계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자영업의 경우 직업환경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업경영 의식은 대학생의 장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이 자신의 잠재적인 직업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업 창업에 대한 생각, 창업과 관련하여 동업을 제외해 왔을 때 학생의 가능한 반응, 기업 경영의 주체인 기업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업경영의식 변인으로 학생 자신이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1문항, 대학생 창업에 대한 1문항, 동업제외에 대한 의향을 묻는 1문항, 기업가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1문항은 기업경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리고 기업가 자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은 홍성도(1999), 민경호(2001)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업경영에 대한 의식,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의식, 동업제외에 대한 의향, 기업가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가 자질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의 20개 문항이므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기업가 자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 대학생 창업에 대한 태도,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기업가 자질의 차이를 살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는 D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법경대학생이 36.4%, 이·공과대학생이 63.6%였다. 이공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연구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학년별로는 1, 2학년 44.1%, 3, 4학년이 55.9%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7.2%, 여학생이 72.8%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형제순위는 장남 또는 장녀가 59.0%, 차남

또는 차녀이하가 40.5%였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89세였으며, 형제수는 2.66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및 전문직이 47.7%, 무직을 포함한 단순노무직, 피고용기능공이 10.7%였으며, 중소기업주가 3.1%였다. 자영업자는 38.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직업은 64.6%가 전업주부였으며 자영업 종사자는 22.1%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52.16세, 어머니는 48.69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5.6%, 대졸 이상이 35.9%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가 3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졸이상은 8.7%에 그쳤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88.38만원으로서 2001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인 233만원, 2001년 3분기 평균임금 273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기준으로 자영업 집단을 분리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195명 중 자영업집단은 84명이었으며 아버지 혼자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41.67%(35명), 부모가 함께 경영하는 경우는 40.48%(43명)이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어머니는 자영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5.95%(5명)였으며, 아버지는 자영업이나 어머니가 무응답인 경우가 1.19%(1명), 그리고 아버지는 타직업이며 어머니 혼자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10.71%(9명)이었다. 부모의 사업에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4.76%(4명), 친척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4.76%(4명), 그밖에 종업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20.24%(17명)이었다. 나머지 70.24%(59명)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 경영하는 경우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업원 수는 50명인 경우가 한 사례, 10명인 경우가 한 사례, 5명인 경우가 두 사례였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1 ~ 3명까지의 종업원인 경우로서 앞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규모면에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7.92시간, 어머니는 7.33시간으로 나타나 아버지 에 비해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월평균 총매출액은 36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순수입은 233.15만원으로 본 연구의 월평균소득 288.38만원보다 낮게 나타나 타 직업군보다 가계소득규모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6〉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N=84)

변 인	집 단	빈 도	백분율
자영업유형 (남편+부인)	자영업+주부	35	41.67
	자영업+자영업	34	40.48
	자영업+타직업	5	5.95
	자영업+무응답	1	1.19
	타직업+자영업	9	10.71
사업참여자	아들	1	1.19
	딸	3	3.57
	친척	4	4.76
	종업원	17	20.24
	없음	59	70.24
종업원수	1명	6	7.14
	2명	4	4.76
	3명	3	3.57
	5명	2	2.38
	10명	1	1.19
	50명	1	1.19
	없음	67	79.76
변 인		평균(단위)	표준편차
자영업근로시간	아버지	7.92 시간	4.01
	어머니	7.33 시간	5.16
매출액		369.80 만원	298.29
순수입		233.15 만원	128.34

2. 기업경영에 대한 인식수준

기업경영의식 변인들의 점수를 살펴보면(<표

7>)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가 3.98, 대학생창업 3.83,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가 3.76이었으며, 낮은 점수를 보인 기업가에 대한 평가도 3.53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기업가 자질은

〈표 7〉 기업경영의식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	3.98	0.86
기업가에 대한 평가	3.53	0.75
대학생 창업에 대한 태도	3.83	0.70
동업에 대한 태도	3.76	0.76
기업가 자질	3.49(69.77*)	7.83

* 다른 점수와의 비교를 위해 원점수(5점 척도×20문항=100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를 5점척도 기준으로 나누었음.

〈표 8〉 부모경영의 자영업 보조여부

부모 자영업 보조여부	빈도	백분율
도와드린다	34	40.48
도와드리지 않는다	31	36.90
무응답	19	22.62
전체	84	100.0

〈표 9〉 자영업 승계의사

기업승계의사	빈도	백분율
그렇다	2	2.38
그저그렇다	10	11.90
그럴 생각이 없다	23	27.38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31	36.90
전체	66	78.57
무응답	19	22.62
전체	84	100.0

3.49로 가장 낮은 점수였으나 중간값을 넘어 기업가로서의 자질은 낮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자영업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도움을 주는지 질문한 결과(〈표 8〉) '도와드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40.48%, '도와드리지 않는다'고 한 경

우가 36.90%로 두 경우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가 경영하는 자영업을 물려받겠는지에 대한 응답(〈표 9〉)으로 '전혀 그릴 생각이 없다'가 36.90%, '그릴 생각이 없다'가 27.38%로 조사대상자의 64.28%가 기업승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

〈표 10〉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의 차이

(N=195)

변인 집단	해보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해보고싶다	빈도	χ^2
학생연령	20세 이하	5(8.33)	8(13.33)	47(78.33)	60
	21세	2(6.90)	3(10.34)	24(82.76)	29
	22세	1(1.92)	12(23.08)	39(75.00)	52
	23세 이상	2(3.70)	9(16.67)	43(79.63)	54
학년	1학년	5(9.80)	8(15.69)	38(74.51)	51
	2학년	-	3(8.57)	32(91.43)	35
	3학년	5(4.59)	21(19.27)	83(76.15)	109
소속대학	법경대학	3(4.23)	12(16.90)	56(78.87)	71
	이,공과대학	7(5.65)	20(16.13)	97(78.23)	124
성별	남학생	3(5.66)	6(11.32)	44(83.02)	53
	여학생	7(4.93)	26(18.31)	109(76.76)	142
형제순위	차남,차녀이하	5(6.33)	16(20.25)	58(73.42)	79
	장남,장녀	5(4.35)	15(13.04)	95(82.61)	115
형제수	2명이하	5(4.90)	16(15.69)	81(79.41)	102
	3명	1(1.82)	7(12.73)	47(85.45)	55
	4명이상	2(8.33)	4(16.67)	18(75.00)	24
부의 연령	40-49세	4(7.69)	3(5.77)	45(86.54)	52
	50-54세	3(3.41)	21(23.86)	65(72.73)	88
	55세이상	3(5.77)	8(15.38)	41(78.85)	52
부의 학력	중학이하	2(5.56)	4(11.11)	30(83.33)	36
	고등학교	5(5.62)	12(13.48)	72(80.90)	89
	대학이상	3(4.29)	16(22.86)	51(72.85)	70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3(5.17)	13(22.41)	42(72.41)
자영업여부	210-250만원	2(5.56)	8(22.22)	26(72.22)	36
	260-300만원	2(5.56)	3(8.33)	31(86.11)	36
	310만원이상	2(3.64)	7(12.73)	46(83.64)	55
	비자영업	7(5.83)	21(17.50)	92(76.67)	120
자영업	3(4.00)	11(14.67)	61(81.33)	75	

였다. 이는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부모의 자영업에 대해 규모면이나 경제적인 수입 면에서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3. 기업경영의식 수준의 차이

기업경영의식은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 대학생 창업에 대한 태도,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 자신 및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표 10>). 분

석결과 기업경영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학생 및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없었다. 이는 기업경영의 평균점이 매우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자신의 학년, 소속대학, 형제관계,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나 학력, 가계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학생 창업의 경우 학생의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연령이 20세 이하인 집단과 21세인 집단에서는 대학생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2세

<표 11> 대학생 창업에 대한 태도

(N=195)

변인 집단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빈도	χ^2
학생연령	20세 이하	1(1.67)	9(15.00)	50(83.33)	17.09**
	21세	-	5(17.24)	24(82.76)	
	22세	2(3.85)	19(36.54)	31(59.62)	
	23세 이상	5(9.26)	7(12.96)	42(77.78)	
학년	1학년	1(1.96)	10(19.61)	40(78.43)	5.86
	2학년	-	6(17.14)	29(82.86)	
	3학년	7(6.42)	24(22.02)	78(71.56)	
소속대학	법경대학	6(8.45)	12(16.90)	53(74.65)	p≤0.53
	이.공과대학	2(1.61)	28(22.58)	94(75.81)	
성별	남학생	4(7.55)	10(18.87)	39(73.58)	14.133*
	여학생	4(2.82)	30(21.13)	108(76.06)	
형제순위	차남녀이하	4(5.06)	20(25.32)	55(69.62)	58
	장남, 장녀	4(3.48)	20(17.39)	91(79.13)	
형제수	2명 이하	5(4.90)	25(24.51)	72(70.59)	55
	3명	2(3.64)	9(16.36)	44(80.00)	
	4명 이상	1(4.17)	3(12.50)	20(83.33)	
부의 연령	40-49세	-	11(21.15)	41(78.85)	88
	50-54세	5(5.68)	22(25.00)	61(69.32)	
	55세이상	5(9.62)	18(34.62)	29(55.77)	
부의 학력	중학이하	1(2.78)	6(16.67)	29(80.56)	70
	고등학교	3(3.37)	22(24.72)	64(71.91)	
	대학이상	4(5.71)	12(17.14)	54(77.14)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3.45)	17(29.31)	39(67.24)	14.133*
	210-250만원	4(11.11)	3(8.33)	29(80.56)	
	260-300만원	2(5.56)	4(11.11)	30(83.33)	
	310만원이상	-	13(23.64)	42(76.36)	
자영업여부	비자영업	4(3.33)	23(19.17)	93(77.50)	75
	자영업	4(5.33)	17(22.67)	54(72.00)	

* P<.05, ** P<.01

<표 12>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

(N = 195)

변인 집단	부정적	그저그렇다	긍정적	빈도	χ^2
학생연령	20세이하	3(5.00)	10(16.67)	47(78.33)	60
	21세	2(6.90)	2(6.90)	25(86.20)	29
	22세	8(15.38)	8(15.38)	36(69.24)	52
	23세이상	3(5.56)	10(18.52)	41(75.92)	54
학년	1학년	3(5.88)	10(19.61)	38(74.51)	51
	2학년	1(2.86)	3(8.57)	31(88.57)	35
	3학년	12(11.01)	17(15.60)	80(73.39)	109
소속대학	법경대학	8(11.27)	8(11.27)	55(77.46)	71
	이, 공과대학	8(6.45)	22(17.74)	94(75.81)	124
성별	남학생	3(5.66)	6(11.32)	44(83.02)	53
	여학생	13(9.15)	24(16.90)	105(73.94)	142
형제순위	차남, 녀이하	7(8.86)	15(18.99)	57(72.15)	79
	장남, 장녀	9(7.83)	15(13.04)	91(79.13)	115
형제수	2명 이하	8(7.84)	15(14.71)	79(77.45)	102
	3명	5(9.09)	7(12.73)	43(78.18)	55
	4명 이상	3(12.50)	2(8.33)	19(79.17)	24
부의 연령	40-49세	4(7.69)	6(11.54)	42(80.77)	52
	50-54세	8(9.09)	18(20.45)	62(70.45)	88
	55세 이상	4(7.69)	6(11.54)	42(80.77)	52
부의 학력	중학 이하	1(2.78)	5(13.89)	30(83.33)	36
	고등학교	12(13.48)	10(11.24)	67(75.28)	89
	대학교 이상	3(4.29)	15(21.43)	52(74.29)	70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5(8.62)	8(13.79)	45(77.59)	58
	210-250만원	4(11.11)	6(16.67)	26(72.22)	36
	260-300만원	3(8.33)	4(11.11)	29(80.56)	36
	310만원 이상	3(5.45)	11(20.00)	41(74.55)	55
자영업여부	비자영업	10(8.33)	17(14.17)	93(77.50)	120
	자영업	6(8.00)	13(17.33)	56(74.67)	75

인 집단은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3세 이상인 집단에서는 긍정적 비율이 다시 높아졌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데 비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은 군 제대후 복학이나 개인적 이유로 인해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한 고연령의 학생들의 대학생창업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가계소득이 21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인 집단과 26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집단은 긍정적인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영업보다는 비자영업 학생들이 대학생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에서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벤처기업과 대학생 창

업등 정보사회의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기업환경과 정보사회로의 사회적 분위가 변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정보사회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전형적인 직업의식에서 탈피해 기업경영이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비자영업적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다.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표 1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초중학교인 경우 동업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교 이상인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은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의

경우와 유사했으나 동업제외에 대한 태도는 자영업에 비해 비자영업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4. 기업가 자질의 차이

기업가 자질에 대한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표 13>) 학생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 연령이 20세 이하인 집단과 23세 이상

인 집단의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세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학업진행에 따른 체계화 능력의 증가,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의 축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그밖에 소속대학별로는 법경대학 재학생들의 평균점이 다소 높았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기업가 자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보다 비자영업인 경우가 근소한 차이이지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3> 기업가 자질에 대한 차이

(N=195)

집단	빈도	평균	DUNCAN	F값	
학생연령	20세 이하	60	69.72	A B	F=4.74**
	21세	29	68.41	A	
	22세	52	67.46	A	
	23세 이상	54	72.80	B	
학년	1학년	51	68.96		
	2학년	35	70.37		
	3학년	109	69.96		
소속대학	법경대학	71	71.31		
	이, 공과대학	124	68.90		
성별	남학생	53	73.42		
	여학생	142	68.42		
장자여부	차남차녀이하	79	69.56		
	장남 장녀	115	69.84		
형제수	2명 이하	102	69.76		
	3명	55	70.33		
	4명 이상	24	70.29		
아버지 연령	40-49세	52	70.35		
	50-54세	88	68.56		
	55세 이상	52	71.21		
아버지 학력	초 중학교	36	70.22		
	고등학교	89	68.74		
	대학교이상	70	70.86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58	69.36		
	210-250만원	36	68.03		
	260-300만원	36	69.75		
	310만원이상	55	71.75		
자영업여부	비자영업	120	70.46		
	자영업	75	68.68		

** P<.01

5. 부모 자영업 학생들의 기업경영의식, 자영업의 직업적 환경, 자영업 승계 의사 등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변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표 14>).

분석결과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와 대학생창업 및 동업제에 대한 태도는 예상할 수 있는대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태도는 기업가자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지닌 학생이 기업경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 창업은 동업제, 기업가평가, 기업가자질, 순수입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기업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은 대학생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기업가 자질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부모의 순수입이 높은 경우 그 자녀의 대학생창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밖에 동업제 및 기업가 평가 두 변인 모두 기업가자질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결국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가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승계의사는 기업경영관련 변인들이나 영업적 특징 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의식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낮은 기업경영의식에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D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사업을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 대학생이지만 창업을 해도 좋다는 생각, 창업을 제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등 상당히 기업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의식수준은 중간 점수를 훨씬 상회하는 점수로서 부정적인 또는 중간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때문에, 학생 및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직업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최근의 경기둔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D대학교내 창업동아리가 부재하며, 당연히 창업관련된 학생들의 활동도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표 14> 기업경영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기업경영태도	대학생창업	동업제의	기업가평가	기업가자질	사업보조	승계의사	근무시간	매출액	순수입
기업경영태도	1.000									
대학생창업	.268*	1.000								
동업제의	.308**	.623**	1.000							
기업가평가	.213	.289*	.198	1.000						
기업가자질	.256*	.345**	.299*	.256*	1.000					
사업보조	-.043	.014	-.112	.044	-.020	1.000				
승계의사	.013	.061	.111	-.090	.095	-.098	1.000			
근무시간	-.145	.008	.095	-.042	-.024	-.096	-.160	1.000		
매출액	-.052	.213	.040	-.066	.130	-.250	-.257	-.098	1.000	
순수입	.205	.410**	.216	.125	.093	-.107	.049	-.176	.672**	1.000
평균	4.04	3.77	3.76	3.57	68.68	0.52	1.74	7.92	366.82	231.88
표준편차	0.76	0.71	0.73	0.77	8.11	0.50	0.83	4.01	298.28	128.34

* P<.05, ** P<.01, *** P<.001

이는 학교의 행정적 또는 교육철학적인 면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내 창업 또는 기업경영관련 교과목이 설강되어 있었지만 단지 과목 개설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을 도출해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각종 창업관련 경연대회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학의 홍보와 실질적인 경비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직접 창업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전남과학대는 지난 해 10월 신규 및 예비 창업업체를 위한 정보제공,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우수제품 전시, 홍보를 겸한 창업로드쇼, CAx(CAD, CAM, CAE, CAT) 경연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학부 및 대학원생, 교수에게 벤처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공이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벤처기업경영을 조건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등의 전략을 쓰는 대학도 있었다. 또 경기지역의 한 대학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벤처창업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창업이나 기업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교육적 배려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세 이하, 21세 집단에서 대학생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학 신입생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도전 정신은 높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의욕이 재학기간 동안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기업가 자질은 23세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하 연령의 집단은 기업가 자질 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라 졸업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업가 자질이 학생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이므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기업가 자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이외에 내외통제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기업가 자질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넷째,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인 학생들의 경우, 기업가적 자질과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이 정적 관계로 나타나므로써, 이들이 사업을 개시한다고 할 때 좀 더 성공적인 사업경영의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러나 부모가 경영하는 자영업체를 승계받을 의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부모의 자영업이 자녀가 기대하는 기업경영의 모델이 되고 있지 못함을 짐작케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공, 학년별, 성별 표집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의식 점수가 전체적으로 중앙값 이상으로 치우치게 나타나 분할표 분석 과정에서 한 셀에 포함되는 사례수를 극히 낮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열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때 조사대상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연대회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의식이 실제 대학생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기업경영, 기업경영의식, 자영업, 대학생

참고문헌

- 공병호(1998). 기업가. 서울: 자유기업센터.
 김승범(1994).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에 대한 고찰 - 경영자 의식조사를 근거로-. 아주경영리뷰. 1권 101-122.
 류재우, 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09-140.
 민경호(2001).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무역경영사.
 홍성도(1999).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서정희(1993). 중소기업 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논문집 4집 109-113.

- 차성란(2001). 가족기업경영 가정의 직업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9호 121-135.
- 한기수(1994).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연구. *매지논총* 461-475.
- 황규승(1990). 전문경영자로의 성장요인분석. *생산관리연구*. 1권 2호 251-276.
- 서울경제. 2001년 10월 26일.
- 조선일보. 2001년 3월 22일. 2001년 4월 5일. 2002년 1월 1일.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Bregger, J. E.(1996).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Jan/ Feb 96. Vol. 119. Issues 1-2, 3-9.
- Goffee, R. & Scase, R(1985). *Women in Charge: The Experience of Female Entrepreneur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Lucas, R.(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Journal of Economics*. 9, 508-23.
- Parasuraman, S., Y. S. Purohit, V. M. Godshalk, & N. J. Beutell(1996). Work and Family Variables,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 of Vocational Behavior*, 275-300.
- Robinson, K.(1979). Class as Conceived by Marx and Dahrendorf: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38-58.
- Economist지. Working for Yourself. 8/29/92. Vol. 324. Issue 7774. p. 61.
- <http://my.netian.com>
- <http://ns.kosen.or.kr>
- <http://www.bizonk.or.kr>
- <http://www.changupnet.go.kr>
- <http://www.chosun.co.kr>
- <http://www.dt.co.kr>
- <http://www.fnnews.com>
- <http://www.njob.biz>
- <http://www.pdi.co.kr>
- <http://www.smba.go.kr>
- <http://www.sohoworld.co.kr>
- <http://www.tcvco.or.kr>
- <http://www.venturepr.co.kr>

(2002. 2. 13 접수)